

버럭 06월호

Contents

| | |
|---------------------------|----|
| 4차 자립생활기술실천 연극관람 - 시크릿 | 2 |
| 5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탐정 리턴즈'영화관람 | 4 |
| 자립생활주택 김옥영 개별ILP -남이섬방문 | 6 |
| 6.13 선거 투표를 하며..... | 8 |
| 정신장애 당사자의 공동체 베델의 집에 대하여 | 9 |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에티켓 | 11 |
| 이달의 정보 | 13 |
| 이달의 시 | 15 |
| 강북센터 CMS자동이체 신청서/CMS납부 목록 | 16 |
| 광고 | 17 |



자립생활기술실천 연극관람 - 시크릿

김지연



2018년 6월 11일 자립생활기술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연극관람을 진행하였다. 당일 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참여자들이 늦거나 오시기 불편하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지만 참여자들 모두 제시간에 도착하여 순조로운 연극관람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과 다 함께 혜화역 2번 출구에 모여 출석체크와 공지사항을 안내드린 후 연극관람 장소인 탑 아트홀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면서 참여자분들에게 연극 보신 적 있냐고 물으니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아예 처음 본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연극을 처음 보시는 참여자들은 연극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해하며 어서 연극을 보고싶다는 기대감을 내비추었다. 막상 극장에 도착하여 보니 정말 소극장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규모의 작은 공연장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작은 곳에서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까라는 기대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번에 관람한 연극은 '시크릿'이라는 극으로 정신병동에서 벌어지는 환자들의 말도 안 되는 대반란으로 미친 사람들의 미치지 않은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다.

연극은 3시 30분부터 시작이었지만 우리는 3시 10분까지 극장에 도착하여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극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시작시간이 되어 문이 열리고 참여자들이 극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탑 아트홀은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야 극장으로 갈 수 있는데 계단이 많이 가팔러 다리가 불편한 참여자들은 공연장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막상 공연장에 앉으니 공연이 다들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공연이 시작되길 바라는 것 같았다.





극이 시작되고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며 참여를 유도하니 참여자들은 망설이는 기색 없이 환호와 함성을 보내주었고 배우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센스 넘치는 답변으로 극이 진행이 잘 되도록 도와주었다. 이 연극은 관객과의 호흡이 중요한 연극으로 관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극이 이어지지 않는 연극이었다.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극은 더욱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 또한 매우 재밌어하며 박장대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에선 감동적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내용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연극은 막을 내렸다.

연극이 끝난 후 마지막까지 남아 배우들과 사진을 찍은 후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도조사 및 저녁식사를 하러 마로니에 공원으로 이동하였다. 비가 내린 후라 날씨가 생각보다 쌀쌀하여 참여자들은 만족도조사를 빠르게 작성하고 저녁 식사를 시작하였다. 저녁식사를 하며 오늘 연극이 어땠냐고 물어보니 다들 너무 재밌고 웃느라 배가 아팠다며 다음에도 또 연극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였다.

참여자들이 연극관람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셔서 진행스텝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끝마칠 수 있었다.



5차 발달장애인자조모임 영화관람 <탐정 리턴즈>

정진경



6월 20일(수)13:50~16:30까지 5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의 일환으로 영화 탐정 리턴즈를 관람하게 되었다.

햇볕이 짙게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을 뚫고 수유역 롯데시네마에서 13시 20분까지 10층에 모였다. 날씨가 더워 행여나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실지 걱정이 되었지만 모자와 선글라스로 멋을 부리며,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신 참여자들 모두 밝은 얼굴로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어 기뻐다.

담당자 김지연 선생님께서 인원체크를 하고 예매해둔 영화표를 결제할 동안 보조 스텝인 나는 영화관람 시 주의해야 할 공지사항을 꼼꼼히 전달하였다. 앞서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접해본 참여자분들께서는 익숙하신 듯 질서정연하게 영화상연장인 14층으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참여자 신학수씨께서 스텝들이 참여자분들께서 드실 콜라와 핫도그 옮기는 것을 선뜻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하시어 한결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자리에 착석하여 참여자들은 옆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시거나 준비해간 다과를 함께 먹으며 영화가 시작되기를



차분히 기다리셨다.

오늘 관람한 영화는 탐정 리턴즈로 배우들의 코믹한 연기와 화려한 액션이 눈을 땔 수 없게 만들었다.

영화 중간 중간 눈을 돌려 참여자분들을 살펴보니 모두 화면에 빨려들어 갈 듯이 집중해서 보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영화가 끝난 후 참여자 남철호씨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고아원 원장이 악당이어서 충격적이었다며 소감을 말씀해주셨다.

만족도 조사를 하며 다른 참여자분들께도 영화에 대한 소감을 여쭙보자 더운 날씨에 쾌적한 실내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만족하셨다는 답변을 해주셨다. 또한 참여자 남태협씨께서 영화에 대한 소감을 문자 엄지로 최고라는 표현을 해주시어 주변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만족도 조사를 모두 끝내고 신학수씨는 오승수씨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다음을 기약하시며 아쉬움을 달래는 모습을 보이셨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 뿌듯함을 느꼈다.

< 자립생활주택 >

개별 ILP - 남이섬 나들이

김다희



화창한 날씨가 반겨주는 5월 15일 입주자 김OO씨의 개별 ILP 프로그램인 남이섬을 방문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김OO씨는 남이섬을 간다는 생각에 들떠있는 모습을 보이시며 연신 웃음을 지어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가평역으로 가기 전 허기를 달래기 위해 상봉역에서 유명한 델리만쥬를 먹으며 경춘선을 기다렸습니다.

가평역에 도착하였고, 김OO씨는 역 밖으로 나가 자마자 먼저 사진을 찍으시겠다고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남이섬은 가평역에서 도보로 20분~30분 정도가 걸리고 전동휠체어로는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았습니다. 남이섬으로 이동하는 길은 휠체어가 다니기에 평탄한 길은 아니었으나 개



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강원도 지역의 다른 길들에 비하면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OO씨와 저희는 그렇게 천천히 경치를 구경하며 남이섬 입구에 도착하였고 '가평에 오시니 좋으세요? 남이섬 이제 곧 들어가는데 배도 타실

거고, 오랜만에 나들이 온 기분 나셔서 신나시죠?’라는 질문에 김OO씨 소리 내어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체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김OO씨라 배를 타고 이동할 때에 복잡거리는 사람들로 인해 정신 없어하실까 염려하였으나 밖에서 웃으며 강가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안도하였습니다.



남이섬에 도착하여 머그컵 페인팅 체험과 예코백 만들기 체험도 하였고 김OO씨는 장애로 인해 손사용이 불편함이 있지만, 이날은 만큼은 본인이 스스로 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최소한의 연필 밑그림 작업만을 도와드리며 나머지 글씨의 선을 따라 검은 펜으로 글씨를 굵게 만드는 작업 및 바탕색칠의 전반적인 활동을 직접 하였고 도와주시는 강사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연달아 하시는 모습도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체험활동을 끝낸 후 남이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타조와 공작새 등 많은 동물을 구경하였고, 기분 좋으셨던 김OO씨는 활동보조인 선생님과 같이 간식을 사 먹자고 하시며 아이스크림을 사주실려는 모습도 보이셨습니다. 원체 돈을 아껴 쓰시는 성격이신지라 김OO씨가 남이섬 방문을 얼마나 고대하시고 좋아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남이섬 나들이를 마친 후 돌아오는 배안에서 김OO씨는 바로 옆 제트보트 체험 현장을 보며 남이섬을 다시 한 번 올 때는 저런 제트보트를 꼭 타보고 싶다고 하시며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OO씨와 꼭 다시 한 번 오자는 약속을 한 후 남이섬 나들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6.13 선거 투표를 하며.....

이선자



6.13 선거하기 1주일 전에 각 후보자들의 홍보 공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각 후보들이 공약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투표 당일 날에 담당선생님께 주의 사항을 듣고 투표를 하러갔다. 투표를 하기 전에 신분증을 내고 본인 확인을 하는데 거꾸로 이름을 적어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투표 접수증을 들고 투표용지를 받는 곳에 가서 접수증을 내고 4장의 투표권을 받아서 투표를 했다. 투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알기로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는 줄 알았는데 투표소에 와서 해보니깐 나눠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활원 원생 중 언어장애와 신체장애가 있는 친구는 혼자 투표를 할 수 없으니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투표를 같이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신분증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감독관 두 분이 오셔서 감시를 하면서 투표가 진행되는 모습을 봤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보호자 신분증을 필요하고, 그리고 감독관들이 왜 필요한지가 궁금하기도 했다. 또, 감독관들이 있으면 불편해서 투표를 잘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보다 6.13 선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1명만 투표하면 되고, 6.13 선거는 7명을 투표를 해야되는데 누굴 하고, 어느 당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 판단을 해서해야 되니깐 많이 힘들었다.

‘베델의 집(Bethel's house)’에 대하여

문지수

‘베델의 집(Bethel's house)’이란?

1978년 ‘도토리의 모임’의 자발적인 멤버 몇 명이 우라카와 교회 예배당을 거점으로 시작한 활동을 시초로 1984년에 홋카이도에 위치한 히다카 지역의 우라카와 마을에 설립된 정신장애 당사자의 공동체입니다.

‘베델의 집은 어떠한 곳인가?’

사회복지법인 우라카와 베델의 집은 3가지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당사자들에게 생활공동체, 일자리 공동체, 치료공동체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의 집의 구성원은 환청에 사로잡히거나 폭력과 도주 등의 활동을 반복하고 또는 알코올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아픔과 괴로움을 끌어안고 생활하는 곳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지만,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 베델의 집 건물 사진출처: 구글

베델의 집은 2층 건물로 되어있으며, 1층은 작업장, 2층은 사무실과 카페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베델의 집’은 ‘베테루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15분짜리 동영상으로도 여러 기관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베델의 집의 하루 일과는 ‘미팅’으로 시작하며, 그 미팅의 이름은 ‘환청 미팅’, ‘가식 덩어리 미팅’, ‘은둔형 외톨이 미팅’, ‘커플 미팅’, ‘여자의 수다방’, ‘부장과의 불화 미팅’ 등 베델의 집에서는 어딘가에서 항상 미팅이 열리고 있고 그 횟수는 한 달에 100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오늘의 컨디션과 기분을 보고하며 몇 시까지 일할 지를 결정하고 일 끝날 때는 오늘의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 더 좋게 해야 할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기분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반성미팅’이라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베델의 집에서는 199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환각&망상대회’는 1년간의 독특한 체험을 한 자에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쓰기 전에 저는 어떠한 주제로 칼럼을 작성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베테루의 집’이라는 영상을 보았던 기억이 나서 이번에 베델의 집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며 베델의 집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베델의 집을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하였을 때, 베델의 집 사람들은 대부분 밝은 모습이며 ‘정신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웃음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베델의 집의 이념에는 ‘세끼 밥보다 미팅’, ‘안심하고 게으름 피울 수 있는 직장 만들기’, ‘스스로 이름 붙이는 자기의 병’, ‘편견, 차별 대환영’, ‘뜨는 인생에서 지는 인생으로’, ‘괴로움을 되찾기’, ‘약점이 인연’, ‘맘대로 못 고친다.’, ‘자기 병’, ‘공사혼동 대환영’, ‘이걸로 만사형통’등 있습니다.

이러한 베델의 집 이념이 그들만의 개성적이면서도 재미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들처럼 긍정적이면서도 밝고 웃음을 잃지 않고 현재에 즐거워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자료출처

https://thailove.net/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127001&page=2

http://occupationasitis.blogspot.kr/2010/11/blog-post_27.html

<http://bemino.com/detail.php?number=9357>

<http://bemino.com/detail.php?number=9377&thread=03r01>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 에티켓

오예진



시각장애인.

길거리를 가다보면 한번쯤은 장애인분들을 본 적이 있을 거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도와야 올바른 방법인지, 요령이 없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혹여나 불쾌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뜻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제대로 된 에티켓을 안다면 작은 실천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도움을 줄 때는 숫자를 사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오른쪽 1m쯤 간다음, 왼쪽으로 2m가세요." 라고 가르쳐주면 좋고, 길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히 도로상태 도로에 설치된 것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야한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는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어준다. 도와주는 사람의 보폭과 시각장애인의 보폭 간격 유지에 좋기 때문에 팔은 팔꿈치 부분이나 팔꿈치 위를 잡게 하는 것이 좋다. 만일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팔을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서로가 상대방의 보행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지체장애인.

휠체어이용 장애인을 응대할 경우에는 뒤에서 잡자기 잡거나 밀면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당사자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턱이나 경사로, 계단 등을 오를 때는 앞바퀴부터 내릴 때는 뒷바퀴부터 먼저 내리는 것이 좋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눈높이를 같게 한 후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청각장애인.

구화법을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몸짓 및 얼굴 표정은 매우 중요하다. 눈과 얼굴을 가리는 의상과 액세서리 착용은 의사소통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과장된 얼굴 표정과 몸동작을 보일 필요가 없으며, 오랫동안 이야기 할 때는 고대를 끄덕이거나 몇 마디 말을 하여 여전히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 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을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청각 장애인과 글로 의사소통을 할 경우 필체에 유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동안 표정을 관찰하여 그가 내용을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적장애인.

정신지체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비장애인과 외견상의 차이는 없으므로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정신질환자로 오인하거나 외견상의 장애인만 장애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처음 만났을 경우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이제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선생님이나 윗사람처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대화를 할 때는 쉬운 단어로 천천히 짧게 말하며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이해가 어려운 경우 그림이나 동작 등을 동반하면 좋다. 외부에서 만날 경우에는 지적장애인들은 교통수단 이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 아는 장소에 만나는 것이 좋고 늦지 않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순간의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언어적 주의만이 아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보인다면 도울지 말지 고민하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이 좋다. 장애인을 두고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는 편견 중 하나이므로 장애인 에티켓을 올바르게 인지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달의 정보

밀알복지재단, '제4회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제4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일상 속의 장애인'을 주제로 사진(3,000*2,000픽셀 이상)이나 수필(4,000자 이내)로 담아내면 된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인 등 장애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7월 15일까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받아 응모작과 함께 이메일(pr@miral.org) 또는 우편(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8, B동 101호 밀알복지재단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먼저 접수한 20명은 참가상으로 기념품을 받는다. 결과는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 심사를 거쳐 8월 중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상(1명, 70만 원) 등 총 19개의 수상작(총 상금 570만 원)을 선정한다. 당선작은 밀알복지재단에서 장애인식개선 콘텐츠로 활용한다. 지난해 수상작인 김인주 씨의 '콩벌레'는 배우 박시은이 내레이션을 하고, 작가 김보통이 그림을 그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다.

기사출처-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3>

제3회 장애인문학공모전 개최

'제3회 장애인문학공모전'이 송파구방이복지관(관장 김진숙) 주관, KEB하나은행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부문은 자유주제로 수필(1편), 시(1~3편)이며 장애인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이달 11일(월)부터 7월 13일(금)까지며 이메일(bangielfare@hanmail.net)과 우편(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68)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모두 상장이 수여되며 부상으로 대상(1명)은 100만 원, 금상(1명) 70만 원, 은상 50만 원, 동상(4명) 30만 원, 가작(6명) 10만 원을 받는다. 결과는 8월 14일(화) 11시 송파구방이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상식은 9월 4일(화) 14시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희망홀씨' 작품집으로 발간된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방이복지관 홈페이지(www.bangielfare.or.kr)에서 확인하거나 성인가족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지원팀(070-4657-21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출처-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

김미연 대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출

한국 여성 인사 최초 선출... 한국 3회 연속 임기위원 진출 달성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김미연 대표(여, 52)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선거는 9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데 22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김 대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77개 당사국 중 총 99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당선된 김 대표의 임기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당사국이 제출하는 장애인권리협약 국별 보고서 심사와 협약 이행 권고 등을 담당한다. 특히 김 대표의 당선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임기위원에 한국 인사의 3회 연속 진출이자 첫 한국 여성 위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 한국 인사로는 지난 2010년 당선된 김형식 위원이 활동 중으로 2014년에 재선돼 올해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외교부는 “김미연 대표는 지난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성안에도 기여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장애인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위원 진출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확보를 통한 전 세계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15~201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국으로 활동했고, 유엔 사무국 내 장애인 접근성 센터 개소 지원과 장애 포용적 유엔조성을 위한 결의 주도 등 국제사회 내 협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기사출처-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094>

지금 곧 간단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일단 성취감을 맛보면,

나중에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돌파할 용기가 솟는 법이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Takeuchi Hitoshi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 | | |
|--|------------------------------|---|--------------------------------|
|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 | | |
| 수납업체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수납목적 | 회원회비 |
| 대표자 | 정종남 | 사업자등록번호 | 210-82-68864 |
|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 | |
|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 | | |
| 신청정보 | 신청인 | 예금주와 관계 : () | 연락처 |
| | 납부금액 |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 납부일 매월 25 일 *미납시 일 일 재출금 |
| 금융거래정보 | 은행명 |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 | 예금주생년월일 | | |
| |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호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호성에프엘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등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 | |
|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호성에프엘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호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
| 신청인 : | | (인) 또는 (서명) | |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 | | (인) 또는 서명 |

18년 06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하용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주영경 최미경 최윤숙 허효숙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동료상담' 외부동료상담가를 모집합니다.

'찾아가는 동료상담'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가치를 높이며, 같은 처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융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찾아가는 동료상담' 동료상담가 2인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사업개요

| | | |
|---------|--|-------------------------------------|
| 채 용 분 야 | '찾아가는 동료상담' 동료상담가 | |
| 내 용 | 방 법 | 동료상담가 1인 월 6회 상담진행 후, 상담일지 제출 (중복X) |
| | 기 간 | 2018년 7월 ~ 11월 (5개월) |
| 보 수 | 건당 30,000원 | |
| 대 상 | 서울시 전지역 1급 ~ 6급 등록 장애인 | |
| 모 집 인 원 | 상시모집 | |
| 응 시 자 격 | 기초·심화과정 수료자 | 심화 수료증, 복지카드 앞뒤면 사본 |
| 모 집 기 간 | 2018년 6월 20일 ~ 7월 03일 (오후 5시까지) | |
| 구 비 서 류 | 이력서, 신청서, 기초 | |
| 신 청 방 법 |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 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접수 | |
| 기 타 문 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96-7776 ✉ kbcil@daum.net | |

※ 위 일정은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자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